

쌀값 고공행진에 변동직불금 '0원' 될까

산지 평균 가격 19만3448원... 2005년 직불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아 국회서 쌀 목표가격 20만6000~21만원으로 결정되면 직불금 0원

쌀값이 오르면서 쌀 변동직불금이 '0원'이 될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2013년산 이후 5년 만에 '0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서다. 만약, 직불금 지급이 결정되고 열쇠를 쥔 국회서 쌀 목표가격 설정을 마르면서 그 시기는 역대 가장 낮은 4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10월~이듬해 1월)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다.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됐다. 이 공식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이 낮거나 수확기 쌀값이 높을수록 변동직불금 액수는 작아진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수확기 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의 규모는 가

늠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쌀 가격이 직불제 도입 이후 최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쌀 목표가격 설정 수준 여부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아예 없거나, 지급된다 해도 5년 만에 최소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산 수확기 쌀 산지 평균 가격(80kg 기준)은 19만3448원으로, 이는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액수다. 이전까지 수확기 쌀값 최고 가격은 2013년산이 기록한 17만4707원이었고, 직전 해인 2017년산은 15만4603원 수준이었다.

이게호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1월 "쌀값 자체를 높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가 직불금으로 소득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쌀값을 통해 소득을 올려야 해 쌀값이 중요하다"고 가격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산 수확기 쌀값을 고려하면 변동직불금이 발동되는 쌀 목표가격은 21만여원부터"라며 "이를 위해 올해 확보된 예산은 2553억원이고, 이를 전부 다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목표가격은 21만7000여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1월 4당 간사가 모여 ▲쌀 목표가격 20만6000~22만6000원 ▲현행 7개 직불금 제도를 2조4000억원~3조원 규모로 통합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한 시장 안전장치 마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가 쌀 목표가격을 20만6000~21만여원으로 결정한다면 변동직불금은 '0원'이 된다. 또 21만여원~21만7000여원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21만7000여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면 가용 예산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높았던 5년 전 2013년산에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2014년산 1941억원, 2015년산 7262억원,

2016년산 1조4898억원, 2017년산 5393억원 등 쌀값에 따라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정부는 최근 쌀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발동하지 않는 수준에서 쌀 목표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동직불금이 0원이 된다면, 올해 예산 2533억원은 불용 처리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국회 일각과 농민단체가 여전히 21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원하고 있어, 결국 국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2013년 이후 최소 규모가 확실시된다.

여기에 국회에서 속도를 내 변동직불금이 발동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역대 가장 낮은 4월이 될 전망이다. 쌀 목표가격이 정해진 후 실제로 농가에 지급하기까지는 실무적으로 10일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직불제가 도입된 이래 변동직불금은 9번 발동됐는데, 2월에 4번·3월에 5번씩 각각 지급된 바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주간 증시 전망

코스피, 비둘기美연준·중국 증시 개방 '주목' 지난주 이어 IT업종 순환매 흐름 지속될 듯

세계 D램 시장점유율 3위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20일 감산을 선언했다. 반도체시장이 물량경쟁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해 글로벌 1~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업종에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다. 전기전자 업종이 지난주 5.32% 상승하면서 코스피지수는 0.5% 상승해 2186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기타법인도 1400억원이상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다.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졌다'며 2019년 금리인상전망을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서 이번에는 동결로 발표했다. 또 5월부터 연준은 현재 월 3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각을 150억 달러로 축소하고 9월말에는 매각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FOMC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비둘기파'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글로벌주식시장 반응은 발표 직후 미온적이었고 지난 금요일 미국증시는 미 국채시장에서 10년물 금리가 장중 2.42%까지 떨어지며 3개월물 금리보다 낮아졌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장기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긴 만큼 위험부담이 커 단기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장기자금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로 통상 경기침체 징조로 여겨진다.

금요일 미국증시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현실화되면서 경기침체 우려로 다우산업지수 -1.77% 하락하며 2만5502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2.50% 하락하며 7642포인트로 마감했다.

2019년 미국 금리인상 동결이 발표되며 향후 미국 금리인하 시 국내주식시장에 대해 실패할 필요가 있다. 국내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미국 금리인상이 끝난 것은 1989년, 1995년, 2000년, 2006년이였다. 2000년도까지 세차례는 모두 국내증시 고점과 거의 일치했고 2006년도 금리인하시에는 중국시장 호황으로 2007년말까지 2000포인트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미국금융위기로 글로벌경기 침체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필자가 올해 초 '전강후약'을 예상하며 연초 반등 이후 2월말경부터 2200선 이상에서 현금비중 확대를 제시한 것도 글로벌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국이 금리인하로 전환된다면 국내증시도 2019년은 조정장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7년과 같이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입장에서 무역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기술유출 방지 및 중국금융시장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기업이 중국 제조업을 통한 수익창출에는 이미 한계점에 와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수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IMF와 그 후 금융시장 개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증시와 동조화가 매우 높은 국내증시에 중국증시 개방으로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국내증시에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주에도 미국시장 급락으로 약세출발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이미정국가로 유입되고 있어 하락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4월까지의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간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지난주와 같이 5G, 미세먼지, 증권, 중국소비주와 함께 외국인 유동성에 따라 IT업종의 순환매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사회적 농장 지원 대상 확대

농식품부, 예비·거점농장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지역민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일반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농장에도 청년인턴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적용하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을 돕는 한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사회적 농업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과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참가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사례처럼 복지교육, 고용 등 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농협, 우수농산물 수도권 합동마케팅 실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최근 전남지역 원예농산물의 수도권 판매확대를 위한 시군 합동마케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지역 연합사업단 8개소가 참여한 이번

합동마케팅에서는 현재 출하중인 딸기와 방울토마토, 고구마, 봄 배추를 비롯해 2분기 출하 예정인 멜론, 비파, 감자 등 주요 품목 위주로 진행됐다.

농협하나로유통, 가락공관장, 농협유통 양

재점, 성남유통센터 등 소비자 바이어와 경매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수도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합동마케팅을 펼쳐 판로확보 등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부 콩 보급종 4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776t 추가 접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다음달 1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콩 보급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남은 잔량을 포함해 전국

남은 잔량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보급품종은 풍산나물콩 100t, 대원콩 568t, 태광콩 44t, 대풍콩 22t, 선풍콩 9t, 선유콩 8t 등 6개 품종 총 776t이다. 공급 가격은 품종 및 소득 여부 관계 없이 포대(5kg)당 2만5580원이다. 종자는 오는 4월29일부터 5월10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콩 정부 보급종은 순수 국산콩으로 정밀한 종자검사를 거쳐 검사에 합격한 종자만을 공급하므로 발아율이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는 종자다.

희망 농가는 우선 해당지역에서 재배가능한 품종인지 여부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2-3971)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2019. 4. 4. 목 ▶ 4. 7. 일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주요프로그램 일정표

4.4(목)

- 10:00 ▶ 12:00 왕인박사 춘향제
- 13:00 ▶ 14:00 왕인어린이 재롱잔치
- 14:00 ▶ 17:00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 14:30 ▶ 16:30 낭주골 어울마당
- 18:30 ▶ 19:00 개막행사
- 19:00 ▶ 21:00 축하방송 & 불꽃놀이

4.6(토)

- 10:00 ▶ 11:00 태권도 & 기예무단 시연
- 10:00 ▶ 16:00 제5회 전국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 11:00 ▶ 13:30 전통다례 시연회 & 토크콘서트
- 13:30 ▶ 16:00 영암 3대 민속놀이
- 16:30 ▶ 18:30 왕인 청소년 페스티벌
- 18:30 ▶ 19:00 왕인뮤지컬 갈라쇼
- 19:00 ▶ 20:30 100리 벚꽃 감성콘서트

4.5(금)

- 10:00 ▶ 12:00 왕인학생 예술대회
- 12:00 ▶ 14:00 제29회 왕인박사 초도 한시연장백일장
- 14:00 ▶ 14:30 성향예술단 전통문화공연
- 14:30 ▶ 16:00 영암 화전놀이 '氣 찬골잔치날'
- 16:00 ▶ 17:00 추억의 동창회
- 17:00 ▶ 17:30 평양 민속예술단 공연
- 18:00 ▶ 18:30 왕인뮤지컬 갈라쇼
- 18:30 ▶ 21:00 우리동네 문화인 페스티벌

4.7(일)

- 10:00 ▶ 12:00 구림 벚꽃길 걷기대회
- 11:30 ▶ 12:00 비보이 쇼베틀
- 12:00 ▶ 13:30 왕인전통은레식
- 13:30 ▶ 14:00 나주시립합창단 초청공연
- 14:00 ▶ 16:00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
- 16:00 ▶ 17:00 왕인전통연희단 공연
- 18:00 ▶ 18:30 폐막행사
- 18:30 ▶ 20:30 구림의 밤 & 불꽃놀이